원폭의 아픔 달래는 히로시마 시민 문화 사랑방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

공립 ■술관의 길을 묻다

〈8〉 히로시마현립미술관

원폭돔과 1㎞ 거리에 1968년 문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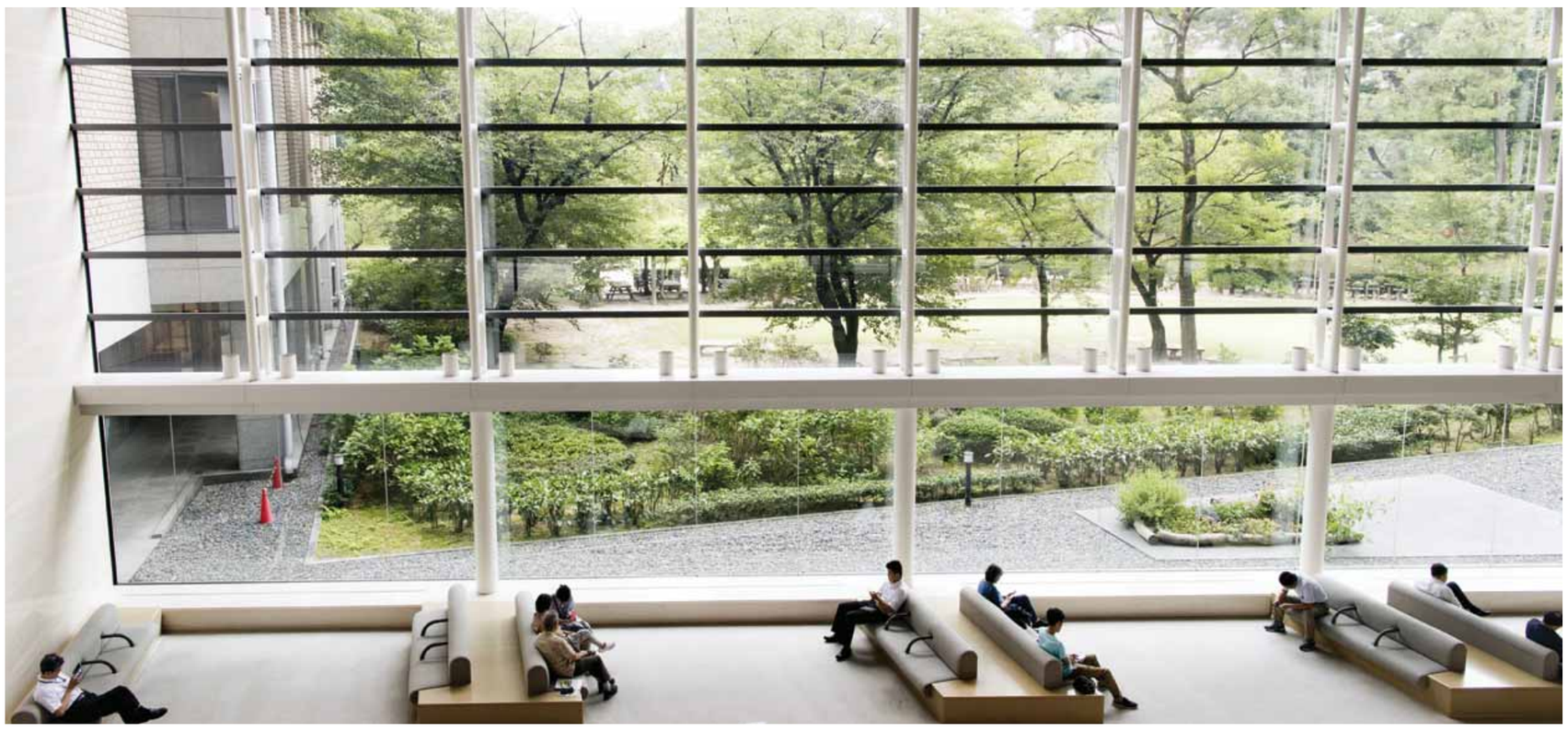
레스토랑·휴게공간 등 지역민 많이 찾아

대형강당 강연회·심포지엄 시민 대여도

소장품 3600여점…1년 6차례 특별전

지역 출신 작가 발굴·조명에 역점

로비 통유리 다이묘정원 풍광 한눈에



일본 히로시마 시민들이 정원 '슈케이엔'이 한눈에 보이는 히로시마현립미술관 로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1968년 개관한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지역 작가 발굴·전시, 시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폭의 아픔을 간직한 일본 히로시마 시민들에서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작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공간이다. 지역 출신 작가를 조명하며 히로시마 미술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가 하면 미술관 내부에서 차를 마시며 국가 명승지 '슈케이엔'(縮景園)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히로시마에서 미술관은 대표적으로 히로시마현립미술관과 히로시마미술관, 히로시마현대미술관이 있다. 주고쿠 지방 최초의 공립 미술관인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1968년 개관했고 히로시마미술관은 그보다 10년 늦은 1978년, 히로시마현대미술관은 1989년 문을 열었다.

모두 공립으로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이 세 미술관은 뚜렷하게 각자의 경계를 정하고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광주시립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지역 출신 작가들을 조명하고 발굴하는 역할이 크다. 1년에 정기적인 기획전과 소장품전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 소장품은 총 3600여점으로, 미술관 2층 상설전시실에서 공개하고 있다

히로시마성(城) 바로 옆에 자리한 히로시마미술관은 관광지 면모가 크다. 고흐, 피카소, 밀레, 모네 등 근대 서양화 대가들의 작품 10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가장 늦게 생긴 히로시마현대미술관은 도시 대표 공원인 히지먀아공원 한가운데 세워져 2차 대전 이후 히로시마와 연관이 깊은 현대미술작품을 주로 다루고 있다.

지난 8월 초 방문한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JR히로시마역에서 노면전철을 이용하면 10분 거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은 미술관이라기 보다는 세로로 길쭉한 도서관 형태를 띠고 있었다. 건물 2개가 붙어있는 듯한 모습인데, 실제 1996년 현 자리에 있던 현립도서관 부지에 미술관을 확장 신축하면서 지금의 면모를 갖췄다.

현립미술관은 크게 ▲히로시마현과 관계있는 미술작품 ▲일본과 아시아 공예품 ▲ 1920~1930년대 미술작품을 중심으로 전시와 연구를 하고 있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이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공간은 1층 로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색 숲이다. 1620년 히로시마번을 다스렸던 아사노 일족이 조성한 다이묘 정원으로,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슈케이엔이다. 현립미술관은 지난 1996년 재개관하며 슈케이엔이 잘 보이도록 로비 한쪽벽 전체를 유리창으로 만들었다. 덕분에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매 계절 변하는 정원의 풍광을 미술관 안으로 불러들이며 대형 풍경화를 걸어놓은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히로시마 시민들이 미술관 로비에 앉아 책, 차와 함께 풍경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미술관 내 레스토랑도 자리하고 있어 굳이 미술작품 감상이 아니더라도 가족, 연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으로 꾸민 게 눈길을 끌었다.

지하 1층도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1000㎡에 달하는 현민갤러리는 지역 미술단체나 개인에게 개방해 누구나 전시를 열 수 있도록 꾸몄다. 매년 초 신청을 받고 있으며 1년간 일정이 꽉 찼을 만큼 인기가 좋다. 또한 현민갤러리와 맞붙어 있는 강당은 미술관이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 심포지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대여할 수 있다.

2층부터는 본격적인 전시공간이다. 2층은 1~4전시실과 조각전시공간으로 구성돼 있었다. 조각전시장을 들어가니 카키에몬 양식(다양한 색깔의 안료를 그려넣은 백색 자리)으로 만들어진 말 형상 작품이 관람객들을 반겨주고 있었다. 에도 시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도공이 만든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도자기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1~4전시실에는 소장품이 배치돼 있었다.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이마리 꽃잎이 그려진 화분받침', '이쓰쿠시마도 병풍'을 비롯해 아이미쓰, 엔쓰바 가쓰조, 히라야마 이쿠오 등 히로시마 출신 예술가의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또 가와이 간지로, 하마다 쇼지 등 대표 민속공예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염색과 직조·금공을 포함한 '일본과 아시아의 공예작품'도 전시하고 있었다. 특히 살바도르 달리의 '비너스의 꿈'과 , 이사무 노구치의 '추상' 등은 수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는 원동력이었다.

3층은 기획전시실이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1년에 6회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별전에 맞춰 강연회와 콘서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또한 3층에도 통유리를 설치해 슈케이엔의 또다른 모습을 제공했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의 1년 방문객은 60만명(2016년 기준) 수준으로, 광주시립미술관의 약 4배에 달한다. 인구 규모(히로시마 285만명·광주 150만명)를 따지더라도 히로시마 시민들이 광주시민보다 현립미술관을 즐겨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히로시마성과는 약 400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원폭돔과는 약 1㎞ 떨어져 있다. 사실 히로시마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미술관이 아닌 원폭돔이 방문 목적이다. 히로시마현립미술관은 지역 향토색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역사·문화 자원과의 공존을 선택하며 공립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본 히로시마시 가미노보리초에 자리한 히로시마현립미술관.

조각·공예품을 선보이고 있는 미술관 2층 조각전시공간.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